

부모와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지적능력

Relationship of Aggressive Behavior to Intellectual Ability in Young Children

곽 금 주*
Kwak, Keum Joo
박 혜 원**
Park, Hye Won
박 광 배***
Park, Kang Bae
김 민 경***
Kim, Min Ky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intelligence in young children. The WPPSI-R was administered to 165 children 3 to 7 years of age. The teacher and the parent separately rated each child's level of aggressive behavior on the same 10 item questionnaire.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intelligence. However, the aggression scores correlated with age and sex. Thus, intellectual ability is not directly related to aggressive behavior in young children.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nd the shortcoming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간의 공격성과 비행은 여러 학문 영역에 걸

쳐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신의학, 교육학 등 각기 그 원인과 증재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어린 아동의 공격성이 발달적인 시간경과에 따라 안정

* 오산전문대 유아교육과

** 울산대 가정관리학과

*** 충북대 심리학과

적인지 그리고 그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

아동기의 공격행동은 청소년기의 비행으로, 성인기의 범죄로 연결되어, 발달과정 전체에 걸쳐 지능만큼이나 안정적인 변인이라는 관점(Huesmann, Lagerspetz, & Eron, 1984; Olweus, 1979)에서, 아동기의 공격행동으로 성인기의 공격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Kagan & Moss, 1962). 뿐만 아니라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은 성인기의 여러 부적응 증세(알코올 중독, 반사회인)를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예견자라고 지적된다(Loeber, 1982).

그러나 공격행동은 어릴 때부터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내릴 수 없는 증거들도 있다. 어린 시기에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50% 미만이 청소년기 비행으로 연결되며, 또 이들 중 일부만이 성인 범죄자가 된다는 연구결과(Blumstein, Cohen, & Farrington, 1988)에 의하면 공격성이나 비행은 안정적이라기 보다 다른 요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이 청소년의 비행으로 연결되는 데에는 연령발달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3).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외에 이러한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그 심리적 기제와 과정에 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요인, 부모관계와 양육,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성 요인, 사회적 정보처리와 문제해결력과 같은 사회인지적 요인, 학업성취나 지능과 같은 지적 요인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지적인 능력과 공격행동, 비행 사이에 상관관계나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이들을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를 밝히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국민학교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더 분명한 설명을 위해서는 더 어린 연령의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공격적 행동과 지적 능력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다.

1. 아동의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시각이 서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공격행동과 지적 능력 간의 관계는 어떤가?

즉 지능이 낮은 아동일수록 더 문제아(공격아)인가?

Ⅲ. 이론적 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과 지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Goddard(1914)가 Binet-Simon의 지능 검사를 처음으로 미국에 소개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적 결함과 비행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아직까지 많은 학자들이 지능과 비행간의 부적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즉 지능이란 비행과 상관성을 지니는 변인으로 사회계층이나 인종 요인과 마찬가지로 비행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인이라고 주장한다. 지능이 높을수록 비행성향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며, 특히 백인의 경우 가장 지능이 좋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이 비행경향이 2-3배나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Hirschi & Hindelang, 1977).

그러나 위탁시설에 있는 비행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일반 청소년의 특성을 비교하는 10년 간의 종단연구에서 Merrill(1947)은 그 전까지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즉 정상아에 비해 지적결함이 있는 아동의 경우 가정의 보호 안에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학교에서도 절도나 무단결석을 하기 쉽다. 따라서 지적 결함이 낮은 아동이 체포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지 지능이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 비슷한 비율로 비행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지능에는 차이가 있어, 예를 들면 위조범은 지능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태만이나 부랑죄는 지적 결함자에게 더 많았다. 그리고 절도와 같은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는 지능과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능이 좋은 경우의 비행은 체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또 최근에는 지능이 높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1. 지능과 비행간의 관련요인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학자들은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능이라기 보다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같은 사회적 환경요인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지능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능과 비행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즉 사회학자들은 비행자가 더 낮은 지능을 지니고 있다는 초기 주장에서 최근에는 부정적인 입장에 더 의견을 수렴시키고 있다.

심리학 분야의 경우,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의 낮은 수행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Caplan, 1965; Glueck & Glueck, 1950)에서는 지능과 공격행동, 비행 간에는 상관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 관련성에 관해서는 서로 일치점을 찾지 못하였다. 최근에는 공격행동이나 비행과 지적능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보다는 이 두 측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고자 하는 관점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다. Berman(1978)은 학교에서의 학습장애의 반작용으로 비행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Hirschi와 Hindelang(1977)도 아동의 학교 경험이 지능과 비행 간의 관계를 중재한다고 설명한다. Lowenstein(1977), Olweus(1978, 1979)의 연구에서도 학교에서 공격행동을 일삼는 부랑아는 일반적으로 학업기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아동의 공격성과 지적 능력간의 관계는 지적인 무능력이라기 보다는 학교에서의 학업수행의 실패나 결여에 의한 것으로, 지능검사의 점수자체 보다는 학업성취 검사 점수가 공격성과 더 관련성이 있다(Loeber & Dishion, 1983).

국민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대한 지능과 학업성취 간의 직접적인 효과를 알아본 연구(Feshbach & Price, 1984)에 의하면 지능과 공격성 간에는 아주 약한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공격성과 언어적 지능 간의 관계는 무시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학교 1, 2학년에 걸쳐 읽기 수준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지능과 공격성 간의 상관보다 더 강하고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성은 일반적인 지적능력보다는 학업수행과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Quay(1987)는 비행자의 경우 지능이 낮다는 입장을 지지하면서 비행자와 일반인의 지능점수 간에는 8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학교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WISC-R)를 사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 8점은 지능검사의 하위영역 중 언어성 검사 점수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비행이나 공격성이 높은 경우 언어성 지능이 낮다는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입장에 대해 지능과 공격성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라기 보다, 지능이 낮으면 학업성취도 낮아지고 학교활동의 참여나 태도도 부정적으로 되어 비행행동을 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언어영역에서의 결함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힘들게 하여 문제를 발생하게 하거나 비행행동을 하게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지능과 공격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학교상황에서의 실패나 좌절경험으로 인한 자아개념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지적능력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지며 따라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된다. 낮은 성취감은 자기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아동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든다. 따라서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닌 좌절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쉽다(Eron, Huesmann, Dubow, & Yarmel, 1987)

또 다른 설명으로 사회적 정보처리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공격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회인지적 관점(Dodge, 1986)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들면 지적으로 낮은 아동은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능력이 낮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반응을 탐색하는 것이 어려우며 선택한 행동의 결과에 관한 평가 역시 부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만들어 내고 이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낮은 지능을 가진 아동이 공격행동의 다른 대안 행동이나 전략을 학습할 수 없다면 공격행동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2. 지능과 비행간 관계의 방향

공격성과 지적 기능간의 관계에 관한 어떤 설명도 지배적인 이론으로 아직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낮은

지능 또는 학교상황에서의 실패나 학업성취의 결여가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일방향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Eron, Huesmann, Dubow, & Yarmel(1987)은 이 둘 간의 관계가 양방향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아동의 낮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로 인해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아동이 지닌 공격성으로 인해 지적 능력이나 학업성취가 낮아질 수 있다. 공격반응은 지적 성취에 요구되는 교사와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간섭하게 되며, 계속되는 공격행동은 학업성취를 낮추어 더 이상 학업성취가 감소되지 않는 정도까지의 지적으로 불모환경에 접하는데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걸쳐 일어나는 공격행동의 변화가 아동기 초기 지적 기능에서 예견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지적 기능의 변화가 초기 공격성에서 예견되는 것인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8세에서 성인기에 걸쳐 22년간의 자료를 통해 지능과 공격행동은 어린시기에서 성인기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나 시간경과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가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낮은 지적 능력과 학업 실패는 어린아동의 공격반응을 자극시키지만, 8세이후 공격행동의 변화에 지능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아동 초기 지적 기능이 성인기 공격성을 예측하기 보다 초기 공격성이 성인기의 지적 성취를 예견한다고 밝혔다. 즉 아동기의 공격성은 그 이후의 지적능력이 기능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 된다.

최근까지도 이와 같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아동의 공격행동과 지능 간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이 둘간을 매개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업성취와 같은 학교에서의 경험을 지적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요인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격 행동과 지적 능력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또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언제 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목적에서 본 연구는 취학전의 어린 아동의 공격행동과 지능 간에 상관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웨슬러 지능 검사 수행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III. 방 법

대 상

서울, 청주, 울산 지역의 만 3세에서 만 7세 연령에 해당하는 남 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웨슬러 유아 지능검사(WPPSI-R)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에 참여한 아동 중 공격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평정 질문지를 실시할 수 있었던 165명에 해당한다. 그 중 교사 질문지, 부모의 질문지, 지능 검사에 있어 문항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여 자료가 미비한 경우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측정도구

1. 지각한 공격행동 측정도구

아동의 행동에 대해 교사가 평정한 점수와 부모가 평정한 점수를 사용하여 공격행동을 측정하였다. 교사용 평정지와 부모용 평정지 모두 같은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광금주(1992)가 사용한 5개의 문항과 Lefkowitz, Eron, Walder 연구(1977)에서 사용한 문항 중 5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얼마나 자주 친구들과의 싸움에 끼어드는 편입니까?”, “다른

친구들을 밀치거나 떠밀기를 잘합니까?”와 같은 10개의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2. 지능 측정도구

아동의 지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 유아용 웨슬러 지능검사(Wechsler Primary and Preschool Scale of Intelligence; WPPSI-R)의 하위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 이것은 6개의 동작성 검사와 6개의 언어성 검사 모두 12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표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검사를 포함한 하위영역 모두를 다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검사는 다음과 같다.

동작성 검사	언어성 검사
모양맞추기	상식
도형	이해
토막짜기	산수
미로	어휘
빠진곳 찾기	공통성
동물짝짓기	문장

절 차

본 연구는 1994년 4월에서 7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각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또는 대학교의 조용한 교실에서 훈련된 검사자가 각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실시방법은 박혜원, 광금주, 박광배, 1995, 참조). 검사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각 아동의 담임 교사와 부모에게 아동의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지를 주고 아동 각각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PC SAS에 의해 이루어졌다.

IV. 결 과

1.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공격행동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에 대한 교사의 평정 점수와 부모의 평정점수에 대한 내적 신뢰도(Cronbach alpha)를 알아보았다. 교사의 평정점수의 내적 신뢰도는 .92이며 부모 평정점수의 내적신뢰도는 .85로서, 모두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평정 점수와 교사의 평정 점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공격성 측정 문항의 요인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인지, 단지 측정오차가 더 많이 개입하였기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다시 말해 남아의 경우 부모의 평정이 교사의 평정보다 다소 낮고 여아의 경우 부모의 평정이 교사의 평정보다 높은 것이 부모가 교사보다 남아에 대해서 더 허용적이고, 여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지 또는 부모와 교사가 아동행동의 다른 측면에 주목하는 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요인 추출 방식은 주성분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교사, 부모 평정 모두에서 단일요인이 산출되었다. 이 단일 요인 각각이 설명하는 변량을 보면, 교사 평정에서는 전체 변량 중 64%, 부모평정에서는 46%를 설명하고 있다. 교사평정과 부모평정에 모두 단일 요인이 추출된 것으로 보아, 교사의 측정점수와 부모의 측정점수 간의 차이는

내적 구조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측정오차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교사의 평정이 각기 아동의 다른 측면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공격성 측정에 대한 교사평정과 부모평정의 평균값,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교사 평정점수와 부모 평정점수의 평균값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들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교사평정 점수와 부모평정 점수 간의 상관계수는 남아의 경우 .57, 여아의 경우 .47, 남녀 전체의 경우 .53이었다.

<표 1> 공격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 자			여 자		
	N	평균	SD	N	평균	SD
교사평정	82	21.62	6.11	83	17.61	5.90
부모평정	83	20.17	4.37	79	18.71	4.87

2. 공격행동과 지적능력

본 연구 대상인 만 3세에서 7세의 아동을 연령별로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지능검사를 동작성 지능검사 점수, 언어성 지능검사 점수, 전체점수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웨슬러 유아지능검사(WPPSI-R)를 표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연령별 규준에 따른 환산점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원점수 그대로 분석하였다. 연령별 지능원점수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연령별 지능 원점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동작성		언어성		전 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3세-4세(43명)	80.42	25.42	39.80	13.77	120.21	36.01
4.5세-5.5세(36명)	129.50	73.59	73.58	17.91	203.08	35.00
6세-7세(66명)	153.83	17.32	101.89	20.18	255.73	33.09

* 165명 중 부모 질문지, 교사 질문지, 지능검사 수행이 모두 보고 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연령별, 성별로 지능과 지각된 공격행동 점수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연령과 공격행동 점수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어($r = -.21, p < .01$), 연령이 높을수록 공격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성별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은 이분화된 명명변인이며 공격행동 점수는 연속변인이므로 이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point-biser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낸 결과 정적상관이 있었다($r = .31, p < .01$). 즉 남아가 여아

에 비해 더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연령과 성별이 공격성 점수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이 두 변인을 통제된 후 공격성과 지능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때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연령과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는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며, 이에 따른 결과가 표3과 표4에 있다.

〈표 3〉 연령에 따른 공격행동 점수와 지능 원점수의 상관

	3.0세-4.0세			4.5세-5.5세			6.0세-7.0세		
	동작성	언어성	전체	동작성	언어성	전체	동작성	언어성	전체
부모평가	-.20	-.26	-.24	-.09	-.24	-.16	-.10	.00	-.04
교사평가	-.14	-.08	-.13	.01	-.06	-.02	.01	.11	.06
합한점수	-.18	-.12	-.18	-.07	-.23	-.16	-.03	.08	.03

* 165명 중 부모 질문지, 교사 질문지, 지능검사 수행이 모두 보고 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표 3〉에서 보듯이 공격성 점수와 모든 지능 원점수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표 4〉에서 보면 성별에 있어서 남아의 경우 공격성과 동작성, 언어성, 전체 지능의 원점수에서 상관은 없었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 부모와 교사의 평정점수를 합해서 낸 아동의 공격성 점수와 동작성 지능 원점수 간에 약하나마 부적상관이 있었다($r = .25, p < .05$).

〈표 4〉 성별에 따른 공격행동 점수와 지능 원점수와의 상관

	남 자		여 자			
	동작성언어성	전체	동작성언어성	전체		
부모평가	-.15	.21	-.18	-.21	-.18	-.21
교사평가	-.08	.13	.10	-.17	.12	-.15
합한점수	-.17	.22	.20	-.25*	-.17	-.22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성이나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들 중 지적 능력과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지능과 공격행동 간의 여러가지 매개 요인(학업성취, 언어능력, 사회인지능력)의 영향이나 다른 환경적인 경험이 비교적 적은 취학전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고 그리고 제언점에 관해 알아보겠다.

본 연구의 결과 지능이 낮은 아동이라고 해서 부모나 교사가 문제아 또는 공격아라고 지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공격성이란 지능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 것이 아니라 이후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 상황에서의 갈등이나, 학업성취의 결여, 또는 그로 인한 자기존중감의 상실과 같은 다른 요인이 매개하여 서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공격행동이란

학교에서의 실패나 좌절 경험에 의한 대안 반응으로, 교사나 동료와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차로 학습되는 것이지(learning processing), 지능이 낮다는 그 자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아동초기, 중기, 후기에 걸쳐 비행의 발달경로 모델을 제시한 Patterson(1989)의 설명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아동중기 단계에서 또래집단의 배척과 학습부진의 요인이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준화된 지능 검사(주로 WISC-R)를 사용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언어성 지능과 공격성 또는 비행간의 부적 상관은 같은 웨슬러 검사인 WPPSI-R 을 사용한 더 어린 연령의 아동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단지 여아에서 동작성 지능과 공격성 간의 부적상관이 그 정도가 약하나 마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의 평정점수를 합해서 산출한 아동의 공격성 점수에서만 그 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이며, 설명하는 변량 역시 매우 작아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능검사(WPPSI-R)는 현재 표준화 중에 있기(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1994) 때문에 지능 검사의 환산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12개의 하위척도를 모두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표준화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나라 아동의 규준에 의한 환산 점수를 사용하여 좀 더 분명한 지능지수를 내는 추후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취학 전 어린 아동의 지능과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공격행동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능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격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의 어린아동을 대상을 하였다. 이 점 또한 의미가 크다. 이외 본 연구의 한가지 시사점으로는 아동의 공격행동이나 비행이 지능과 같은 안정된 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면서 학습되는 것이라고 볼 때, 예방이나 중재가 좀 더 용이하다는 확신을 하게 한다. 따라서 공격적인 아동,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의 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며, 이들을 위한 교육,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전문가의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겠다. 그러나 아동의 공격 행동이 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성취의 문제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어린 연령에서 시작하여 국민학교 연령까지 연장하여 이들의 행동을 측정하는 종단적인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아동의 공격행동에 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만 3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어린 아동에서 측정된 이 행동을 더 나이든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행동이나 비행과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다. 특히 공격행동 측정 문항에 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단일요인이 추출되었다. 비록 이것이 전체 변량 중 많은 부분을 설명하긴 하나 아동에게 일반적으로 내재하는 단일 행동 특성만을 측정해낸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어린 아동이므로 이들의 행동 분화가 안된 상태로 표출되어 평정자로 하여금 변별되어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부모와 교사로 부터 아동의 행동을 평정하게 하였는데, 이는 아동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검사자가 아동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 또한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 명확한 측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1992). 공격영화 시청에 따른 공격스크립트의 활성화-아동과 청소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5(1), 85-98.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6(2), 29-43.
- 곽금주, 윤진, 문은영(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7(1), 12-27.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4). 한국 유아지능 검사(WPPSI-R)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7(2), 38-52.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역(1995). WPPSI-R 지침서. 서울:도서출판 특수교육.
- Berman, A.(1978). Delinquency as a learning disability. *Science News*, 114, 180-181.
- Blumstein, A., Cohen, J., Farrington, D. (1988). Criminal career research: Its value for criminology. *Criminology*, 26, 1-35.
- Caplan, N. S.(1965). Intellectual functioning. In H. C. Quay(Ed.), *Juvenile Delinquency: Research and Theory*. Princeton, N.J.: Van Nostrand.
- Dodge, K. A.(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Vol. 18, pp. 77-12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Associates.
- Eron, L. D., Huesmann, I. H., Dubow, E., Romanoff, R., & Yamel, P.W.(1987). Aggression and its correlaters over 22years. In N. H. Crowell, R. J. Blanchard, I. Evans, & C. R. O'Donnel(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Feshbach, S., & Price, J.(1984).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competencies and the control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0, 185-200
- Goddard, H. H.(1914). *Feeble-mindednes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Macmillan.
- Glueck, S., & Glueck, E.(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Hindelang, M. J.(1977). Intelligence and delinquency: a revisionist review. *American Sociology Review*, 42, 571-587.
- Huesmann, L. R., Lagerspetz, K., & Eron, L. D.(1984). Intervening variables in the TV violence-aggression relation : Evidence from two count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46-775.
- Kagan, J. & Moss, H. A.(1962). *Birth to maturity: a study in psychologic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Lefkowitz, M. M., Eron, L. D., Walder, L. O., & Huesmann, L. R.(1977). *Growing up to be violen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New York: Pregamon Press.

- Loeber, R., & Dishion, T.(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eber, R.(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Lowenstein, L. M.(1977). Who is the bully? *Home and School, 11*, 3-4.
- Merill, M. A.(1947). *Probelm of child delinquency*. Boston: Houghton Mifflin.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New York: Wiley.
- Olweus, D.(1979). The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huma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5*, 852-875.
- Patterson, A. C., DeBaryshe,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Quay, H. C.(1987).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Wiley.